

연중 제 33 주일:

2016 년 11 월 13 일 (다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41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41)

봉헌 (219)

성체 (166)

파견 (436)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올리안나.

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3	박 니콜라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2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2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성인 복사
12/04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11	박 니콜라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8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1/06/16	\$273	\$83	\$450

부천 시립 합창단 합동공연, 11/4/16, 오후: 7 시 30 분

자매도시 결연 10 주년을 맞아, 베이커스필드 메스터 코렐과 세계적인 수준의 부천 시립 합창단이 합동 공연을 St. John's Lutheran Church Worship Center 에서 11/4/16, 오후:7 시 30 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합동공연을 위해 봉사해주신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욕망 알아채기

정수 그라시아 | 배우

가끔 “탈런트리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달란트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시다시피 탈런트라는 말은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님께서 주신 재능. 그렇다면 저에게 주님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욕망 알아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물 내면의 욕망을 치하게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알아채다? 좀 생소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저자신으로 말이죠. 정수 그라시아 30 대 중반, 기혼, 모태신앙의 평범한 인물인 그는 현재 부담감에 시달리며 이 글 쓰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수 없이 주제를 바꾸고 백지화시켰죠. 마음속으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라며 깊은 좌절감에 공공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좌절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왜, 이 인물은 좌절감을 느낄까요? 그건 기대치 때문입니다. 그것에 못 미치는 만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을 잘 쓰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한다”라는 기대치. 그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욕망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제 좌절감의 씨앗이 되는 욕망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땐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제 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 빛으로 제가 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방식이든 누구를 통해서 건 답을 주십니다.이번에는 고해성사 중에 신부님의 말에서 그 답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늘 죄에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주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처럼 불완전한 제가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소식

평협임원회의: 11 월 13 일 (일) 오후 7:00 시

11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11 월 13 일 (일), 오후: 7:00 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11 월은 위령의 달

11 위령성월의 달을 맞이하여, 미사전에 위령성월 기도를 바칠 예정이며, 미사지향을 원하시는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보라색 봉투를 사용하시어, 제대위에 봉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16 년 가을 피정 계획

지난 4 주간의 의견 수렴결과, 단체 피정보다는 개인별 피정을 갖고자하는 분들이 다수라, 금년 가을 피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각 개인별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좋은 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6/13, 하마йка 축제

지난 주에 하마йка때에 봉사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봉사로 하마йка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습니다.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추수감사정 Dinner - 11 월 22 일(일) 몇시?

2016 년도 벌써, 다음주면 감사와 나눔의 Thanksgiving days 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에서도, Thanksgiving Dinner 는 11 월 22 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작시간은 각 구역장님들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나를 좌절감에 빠뜨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단지 진실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제 정수이라는 인물은 그간 그를 괴롭히던 깊숙이 숨겨졌던 욕망이 밝혀져서 교만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다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어떠세요? 배우가 인물의 내면을 분석하는 과정, 나를 죄로 이끄는 부정적인 욕망 찾기. 좋은 배우가 되는 지름길!

탈런트인 제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교리상식

미사 예물을 바치고 참여하는 미사와 그냥 개인적으로 지향을 두고 드리는 미사는 다른 점이 있나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미사 예물을 바쳐야만 미사 지향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미사 지향을 갖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사 예물을 바 치고 참여하는 미사는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의 기억만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가 특별한 지향(혼 인, 장례, 생일, 기일, 축일, 기념일 등)을 두고 미사를 신청 하면 가족이나 공동체가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